친환경차·AI·에너지…광주, 4차 산업 선도도시 '기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역할과 파급효과

민선7기 1호 공약…전국 9번째 지정
투자유치 쉬워지고 신산업 일자리
광주경제 돌파구…미래 먹거리 마련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현황도

정부가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구역을 정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9번째로 지정된 광주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인 투자유치는 27일 개청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맡게 된다.

◇우울한 광주경제 돌파구 찾아 내다=경자청은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들이 포진된 4개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경자청의 성공 여부는 광주경제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 경자구역에는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규제 특례 적용,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기업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광주는 자동차, 광산업 등 기존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자청 출범 의미도 남다르다. 광주는 시민 1인당 GRDP가 2017년 기준 전국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산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작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이러한 광주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1호 공약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세운 끝에 전국 9번째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광주는 민선 7기 들어 경자구역 지정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세계 최초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완성형 자동차 공장'이 올해 완공되면 양질의 신규 일자리만 1000개 넘게 탄생한다.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전국 유일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융합집적단지 사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만든다=광주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다. 경자청은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와 AI기반 융복합산업을 결합시켜 광주만의 차별화한 비전과 강점을 갖춘 경자구역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에너지·에어 가전·생체 의료 등 대표 산업 분야와 연계해 연구 개발(R&D)와 제품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산단)는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육성된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장분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등도 오는 5월이면 문을 연다.

스마트 에너지산업 I·II지구(남구 에너지밸리, 도첨 산단)는 에너지 ICT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연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특화한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구로 탄생한다.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북구, 광산구)는 핵심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융합을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너지·생체의료용 소재부품 산업에 빅데이터 기술과 관리 플랫폼 구축 기술 등을 융합하고, 헬스케어 관련 산업을 대거 육성한다.

◇투자유치 전환점 마련하다=광주시는 경자청 출범으로 각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조직과 전문인력이 구성돼 국내외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자청을 중심으로 4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 집적화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침체했던 광주 투자유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자구역 지정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효과는 기업 투자유치의 큰 힘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규모에 따라 지방세, 관세 등이 감면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취득세(지방세)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지방세)도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하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와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도 관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혜택 강화 등 해결과제도 많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면밀한 투자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올해로 시행된 지 18년이 됐지만 '무늬만 자유구역'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 점도 악재다.

광주시는 경자구역이 있는 타 지역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 확대 등을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유력주자 이재명 뜨자 여의도 북적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범여권 의원 50명 공동주최자
박영선·우상호 의원도 눈도장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여의도 행사에 여권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셈이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국회의원 50명이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 20여명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소병훈·임종성·조응천·김남국·김승원·민병덕·박상혁·서영석·이규민·장경태·조정훈·최기상·홍기원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민주당의 20~30대 의원들과 오찬을 했으며, 27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도지사 공관에서 일부 의원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 지사가 여의도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식사는 늘 하는 것이니 그 기회에 만날 사람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 일상적 활동의 일부로 봐 달라"고 확대해석에 거리를 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 박 전 장관은 축사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으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상의하는 관계"라며 "이 지사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경기도를 이끄는 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도 "토론회를 이례적으로 수십 명이 공동 주최하는 것을 처음 본다. 관심도 많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정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 대안이 더 많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자. 이재명 지사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 지사와 박 전 장관, 우 의원은 이날 행사에 앞서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 우 의원이 "둘 중 한 명이 파트너가 될 텐데"라고 말하자 이 지사가 "두 분 다 나가시면 안되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 같다)"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홍남기에 "손실보상제 세심히 준비" 지시…원팀 강조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내각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며 당정 간 혼선을 '교통정리'한 만큼, 이제는 내각이 하나 돼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홍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로 주재하고 있지만 이날처럼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1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교개학 등 신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설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도 현장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과 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선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I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